

#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 올해 새 얼굴은 누구?

### 지난해 7월 창단...오늘까지 신입생 캠프 진행 예비 중학생·재학생 등 총 52명 신청 '인기'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이하 '곡성 관현악단')이 16일부터 19일까지 2021년도 신입생 캠프를 진행한 다. 곡성 관현악단은 곡성미래교육재단 주도로 지난해 7월 창단한 신생 관현악단이다. 단원들은 곡성, 석곡, 옥곡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 1월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창단연주회에서는 짧은 연습 기간임에도 예상 외의 연주 실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2년차를 맞은 곡성 관현악단은 더 많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고자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신입생 캠프를 진행하게 됐다. 캠프에는 예비 중학생과 재학생 등 총 52명이 신청해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5일에는 곡성 미래교육관 시청각실에서 2021년도 신입생 캠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관현악단 지도진을 소개하는 시간과 청소년기에 관현악 활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였다. 또한 지휘자와 학생 개별 면담을 통해 앞으로 연주하게 될 악기 파트를 선정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오리엔테이션을 바탕으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곡성중과 석곡중에서 신입생 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악기별 지도강사로부터 기본기를 학습하고 개인별로 역량을 강화하는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캠프에 참가한 예비 중학생 A씨는 "지난달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유튜브를 통해 곡성꿈놀자 관현악단 창단연주회를 보고 신청하게 됐다. 선배들처럼 멋진 연주를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니 중학교 생활이 설레고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단원들과 시청자 모두 창단연주회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들 한다. 올해도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배려하며 한 곡 한 곡 연주를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 나의 제안이 대한민국 바꾼다 화순군,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다음달 17일까지 접수

화순군이 행정안전부와 2021년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간이며 화순군민, 기업,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절차, 제도, 서류 서식 등)의 개선을 직접 제안하는 공모전이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제도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취업·일자리(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과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규제) 등 5개 분야다.

복수 공모도 할 수 있고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다른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안된 혁신 과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공모 신청서는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서식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맞춰 작성해, 전자우편(bj8795@korea.kr) 또는 일반우편(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061-379-3253)로 문의하거나 화순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군민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장성군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10→13개로 확대

### 장성군민이면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장성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장성군은 기존 10개 보장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추가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최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은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재해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일사·열사·저체온증 등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등 10개 항목에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 다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기동취재본부

## 최형식 담양군수, 화재안전 '119 릴레이 챌린지' 동참해

### 다음 김종식 목포시장·허석 순천시시장·유근기 곡성군수 지명



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뒤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담양군은 18일 최형식 담양군수가 황숙주 순창군수로부터 지목을 받아 겨울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119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1월 9일 제 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시작된 SNS 캠페인 활동으로, 화재 초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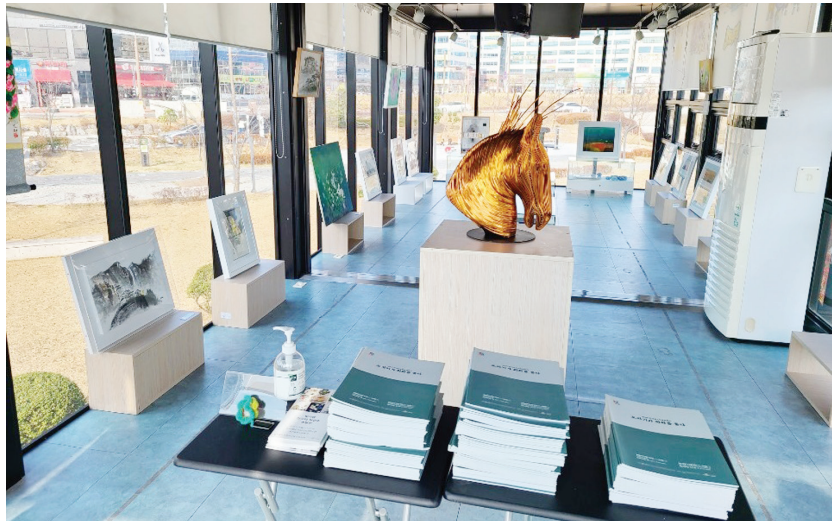
챌린지는 '1-하나의 집·차량마다, 1-하나의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

담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활동 및 전열기구 사용 증가로 인해 화재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담양군은 화재예방을 위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며 피해 시 지원을 위한 군민안전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한편, 최형식 담양군수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종식 목포시장과 허석 순천시시장, 유근기 곡성군수를 지명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나주시, 혁신도시 스마트스테이션 시민전시회 작품 접수

### '소소하지만 나누고 싶은 나만의 전시회' 주제 26일까지 신청



나주시는 시민의 문화 향유와 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빛가람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시민전시회' 작품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소하지만 나누고 싶은 나만의 전시회'를 주제로 오는 26일까지 작품 전시를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출품 분야는 미술·사진·공예 등 예술작품, 개인 수집·소장품 등 한 달 이상 전시 가능한 작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신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시청 문화예술과(339-4623)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